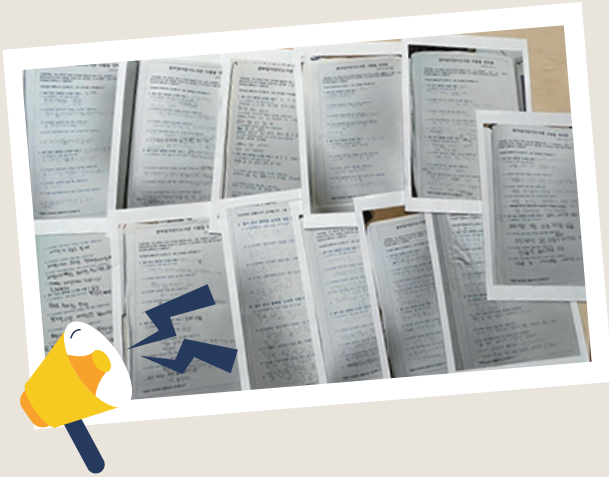


도란도란 꿈바당

여름방학 특집 기사

도란도란~ 꿈바당도서관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코너는 꿈바당어린이독서회 친구들이 진행했던 도서관 선생님들의 인터뷰 기사를 실어봅니다 :)

친구들이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선생님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며, 도서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평소 궁금했던 내용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취재한 도서관 선생님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01.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양민숙** 팀장님

꿈바당 기자
고예리, 고은결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도서관 모든 운영과 관리, 총 책임을 저요.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코로나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노력 많이 하는데 잘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올 때예요.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도서관 모든 공간을 하나 하나 둘러보고 이용하고,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이용자가 모두 아끼고 사랑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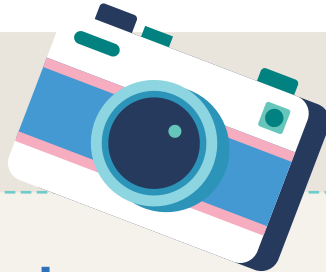
Q 자유 질문

Q 꿈바당도서관에서 몇 년 일하셨나요?

A 5년 9개월

Q 추천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A 조혜란 작가님 그림책 「참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책



02.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권지영 선생님

꿈바당 기자
고예리, 고은결, 백지유,
변수진, 함민서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도서관에 올 수 없는 여러 친구들을 위해서 제주도 전체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있을 때,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즐길 때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특별히 힘든 것은 없는데, 도서관에 어린이가 많이 오지 않을 때,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오지 않을 때, 만들어야 하는 서류가 많을 때, 도서관에서 준비한 행사 때 비가 올 때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도서관에 자주 오면 좋겠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Q 자유 질문

Q 꿈바당도서관에서 몇 년 일하셨나요?

A 올해부터, 1년 전에는 다른 일을 많이 했다

Q 추천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A 나의 아기 오리에게

03.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김주미 선생님

꿈바당 기자
안시울, 양효린, 이가빈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하고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프로그램에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했을 때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친구들이 결석했을 때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프로그램 참여 약속을 잘 지켜주고 도서관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04.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변정은 선생님

꿈바당 기자
안시울, 양효지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저는 운영지원팀이구요, 도서관의 예산,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서류 작업이 많을 때 (도서관 이용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서)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A 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행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웃으며 돌아갈 때면 행복합니다.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편하게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5.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유진 선생님

꿈바당 기자
김아인, 양효지, 함민서, 홍은서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열람실 소속 사서입니다. 도서 전시와 그림책 원화 전시 등 <북갤러리>를 운영하고, 잡지 관리, 좋은 책과 새로운 책, 희망도서를 조사하여 구입 하고, 학부모 독서회와 봉사 동아리 (이야기샘)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책을 읽고 나서 책장에 꽂지 않고 북트럭에 넣어 주세요. 읽고 싶은 책, 재미있는 책, 희망도서 추천해주세요.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추천한 책을 이용자가 재미있다고 할 때,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할 때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이용자가 찾는 책이 제자리에 없어서 읽을 수 없을 때, 신청하고 연락없이 안 올 때, 책을 함부로 볼 때

Q 자유 질문

Q 나에게 도서관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장소인가요?)

A 어린이와 만나고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06.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임경아 선생님

꿈바당 기자
김아인, 양효린, 이가빈, 홍은서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사서입니다. 도서를 구매하고 도서를 정리하고 열람실을 관리합니다.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이용자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을 때, 특히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함께 책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자리에 없어 찾기 힘들 때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책을 읽고 나면 북트럭에 놓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Q 자유 질문

Q 사서가 되고 싶었나요?

A 사서가 꼭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사서가 되어서 재미있고 행복해요

Q 몇 번대 책을 제일 좋아하시요?

A 800 문학

07. 내가 만난 꿈바당 도서관 사람 한재경 선생님

꿈바당 기자
백지유, 변수진

Q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어린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를 담당해요.

Q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많이 찾아와줘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Q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A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아플 때

Q 도서관 이용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친구들에게 도서관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친구들과 같이 와 줬으면 좋겠어요.

Q 자유 질문

Q 이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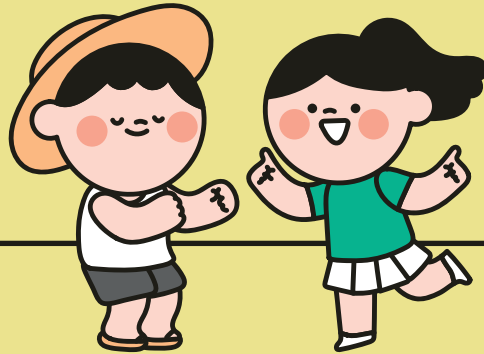
A 너무너무 좋아요

Q 도서관에서 일한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A 2년

꿈바당 책

드리에 불놓 덩사덩사



부북정

제 고향은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요. 물론 지금도 살고 있고요. 부모님의 고향도 제주입니다. 특히 친가 쪽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부을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시조는 탐라국 건국 신화에 나오는 삼을나 중에서 부을나였던 것입니다.

탐라국 건국 신화인 삼성 신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충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라산의 북쪽 기슭에 모흥(毛興)이라는 굴이 있고, 그곳에서 삼을나(고을나, 양을나, 부을나)가 나옵니다. 삼을나는 사냥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동쪽 바닷가에 떠내려온 함을 발견합니다. 그 함을 건져내어 보니 안에는 세 공주와 망아지, 송아지, 오곡 종자가 있었지요. 삼을나는 그 공주들을 배필로 맞고, 각자 활을 쏘아 떨어지는 곳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내려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고향에는 삼성 신화 외에도 그리스 신화에 버금가는 신화와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고, 그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볼거리를 마련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문화사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어떡하면 우리 이야기를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우리 고향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불 축제입니다.

들불 축제는 매해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시작되는 즈음에 열립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목축문화인 '방앗불 놓기'라는 풍습에서 시작된 불농기를 관광 축제로 만든 것인데요, '방애'는 새봄이 찾아올 무렵 소와 말의 방목지에 불을 놓아 진드기 같은 해충을 없애고 가축에게 먹이기 좋은 풀을 얻기 위해 벌였던 풍습입니다. 그 불농기를 할 때, 탐라국의 시조인 삼을나가 나왔던 모흥혈,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혈에서 불씨를 채화하여 불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삼성 신화와 들불 축제를 연결해 이야기를 짓고 싶었습니다.

들불 축제는 오름 전체에 불을 놓는 축제로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 보니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 생긴 큰 산불로 인한 피해에

일부러 불을 놓고 즐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취소되기도 했지요. 또한 탄소 발생을 유발하게 해서 자연 친화적이지 아니라는 일부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들불 축제는 우리 고장 최대의 축제로 발전해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쏠리는 축제와 연계해 이야기를 풀어낸다면 우리 고장의 신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를 본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낯선 언어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표준어로 뜻을 알고서는 고개를 끄덕거리지요.

‘드르에 불 낳 덩씩덩씩’은 ‘뜰에 불 놓고 덩실덩실’이라는 뜻입니다. 방앗불 놓듯이 들판에 불을 놓으면 해충들이 사라지고 땅이 비옥해지겠지요. 말과 소의 먹이인 풀이 잘 자랄 테고, 곡식도 알곡이 잘 여물 것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둔 농부들은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알았으니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첫 장을 펴서 읽으려는데 자꾸만 더듬거리집니다. 읽기도 힘들고 뜻도 모르겠고, 에잇! 하면서 덮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힘들어도 자꾸 읽다 보면 할머니의 말이, 할아버지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릴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씩 제주어가 눈에 들어오면 익숙지 않은 말에 당황하던 눈길이 자꾸 글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정 갑갑하면 맨 끝에 달아놓은 해석본을 보면 이해가 쏙 들어올 테고요.

갑갑하게 왜 제주어로 달아놨냐고요? 제주어는 모국어로 우리 고장 선조들이 오랫동안 써 온 말입니다. 그 귀한 말이 사라진다는데 가만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주 접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어로 우리 탐라국의 건국 신화를 되새기며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보는 건 어떠신지요?



작가소개 <부복정>

작가 부복정은 제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주작가 신인상을 수상(2012), 불교신문 신춘문에 당선(2013)하였습니다. 동화집으로는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행복바이러스》(공저), 《뚜럼허당》, 《드르에 불 낳 덩씩덩씩》이 있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

저자 이금이
출판사 창비
꿈바당 위치 청소년 813이17 (꿈자람책방)

일제강점기 시대, 희망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조차 점점 희미해질 때, 같은 마을의 3명의 소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험과 같은 긴 여정 끝에 포와(하와이)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깨달은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인생의 파도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꽃과 꽃을 이어서 만든 하와이꽃목걸이 '레이'처럼 서로가 이어져서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들의 인생에도 그런 '레이'가 생겨납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 여성들의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이야기를, 험난했던 시대의 파도를 헤쳐나갔던 그녀들의 이야기 여운 속에서, 나의 레이는 어떤 꽃들로 이어져 있는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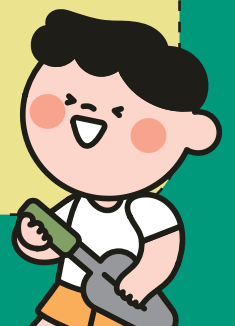
저자 미로코마치코 글/고향옥 옮김
출판사 트리앤북
꿈바당 위치 유아 833미29 (그림책방)

수 ————— 옥!
까망이 머리 꼭대기에서 별이 나왔어.
“아하, 나는 코벨소구나. 무척 자랑스러운걸.”
별속 별속 별소옥~~~~~
까망이 온몸에 하얀 점이 오들토들 돌았어.
“나는 코벨소가 아니라 별타인가봐. 우아, 예별걸!”

주인공 까망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까망이의 존재를 비밀로 한 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어둠속에서 힘차게 뻗어나가는 까망이라는 존재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그림책을 만났습니다.

거칠고 힘 있는 작가의 붓터치와 강렬하게 변화하는 색감에 빠져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벅차오르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글도 재미있어 리듬을 타며 크게 읽어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까망이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어린 친구들의 성장도 이 그림책을 통해 함께 응원해봅니다.



7 어린이 프로그램



꿈바당 프로그램



꼬마작가의 연필

대상 초등 1~2학년(16명) **기간** 7월 2일~23일(매주 일), 10:30~12:00
내용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문화 배우기,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상상력, 표현력 기르기



꼬마작가의 노트

대상 초등 3~4학년(16명) **기간** 7월 1일~22일(매주 토), 10:30~12:00
내용 우리나라 건국신화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의미 되새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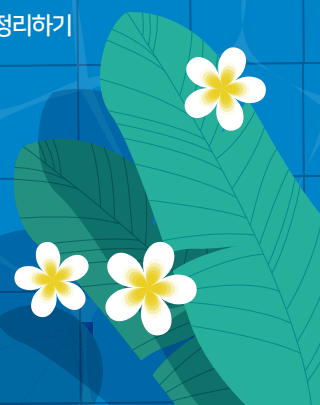
그림책 놀이터

대상 6~7세(15명) **기간** 7월 2일~23일(매주 일) 11:00~11:45
내용 손놀이, 몸놀이 등 즐거운 신체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그림책을 읽으며 책과 친해지기



그림책 하브르타

대상 초등 3~5학년(16명) **기간** 7월 1일~22일(매주 토) 13:30~15:20
내용 독서를 하며 질문을 떠올리고, 2인 토론 및 종합토론을 통해 생각의 결과 정리하기



2023 찾아가는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7월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30개 기관에서 32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부터 서귀포, 애월, 한림, 안덕, 남원, 성산, 구좌, 조천, 우도까지 제주도
한 바퀴를 돌며 친구들을 만나러 마을 곳곳으로 찾아다녔답니다!
7월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영화 속 주인공은 나야 나!
꿈에그린2단지새마을작은도서관



그림자 연극 만들기
우도작은도서관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18개 주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알록달록 미술놀이터
지오숲새마을작은도서관



북콘서트
하원애향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 동아리

어린이 및 청소년 동아리 3개 팀과 성인 동아리
4개 팀이 진행되었어요.



봄아름작은도서관
(청소년)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
(어린이)



새순지역아동센터



신촌지역아동센터

책놀이 꾸러미 프로그램

'여행'을 주제로 한 도서와 책놀이 꾸러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7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합니다.



안덕지역아동센터



이호지역아동센터





2023년 상반기 <꿈바당어린이독서회>는 책이랑 도서관과 친해지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같이 책을 읽고, 책을 활용한 놀이도 즐기고,
 <독서노트>에 내가 읽은 책을 기록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또 도서관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서가에 꽂힌 책들도 직접 찾으러 다니고 도서관 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무와 풀들을 직접 찾고, 키워보기도 했어요. 가끔은 줄넘기 등 재미있는 야외놀이를 통해 도서관 이라는 공간 안에서 책, 친구들과 함께 행복을 찾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독서회를 꾸려나가면서 보낸 시간들과 작품들을 자랑할게요 ^^

참여 친구

1-2 학년

강재이, 김건아, 김은서, 김준성, 김하울,
 박서은, 송지유, 신연두, 이솜, 임서현,
 지윤주, 퀴채이, 한그루

3-4 학년

고예리, 고은결, 김나연, 김아인, 변수진,
 백지유, 안시울, 양효린, 양효지, 오지후,
 이가빈, 최형주, 하이은, 함민서, 홍은서

어린이 독서회 작품전시 (추천도서 등)





어린이 독서회
식물키우기
체험



어린이 독서회
도서관 나무
그림카드 만들기



8월에 만난 <함께같이도서관>은 '광령1리새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애월읍에 위치한 광령1리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우리 함께 풍당~ 들어가 볼까요?

'광령1리새마을 작은도서관'을 찾아서

허유미(작가)

고향 동네 입구에 우람하고 울창한 팽나무가 있었다. 더운 날에는 바람과 그늘을 주고, 심심한 날에 팽나무 가지 타고 올라가면 더욱 푸른빛으로 펼쳐지는 하늘을 보여주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에 비를 피할 공간을 주기도 했다. 혼자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늘 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동네 어른들은 굴이나, 옥수수 삶은 것들을 나무 아래 두면 우리는 갈증과 주린 배를 해결할 수 있었고, 어느 날부터 장기간이며 바둑, 책도 놓여 있어서 하교 후 식구 없이 냉기만 가득한 집에 안가고 팽나무 아래서 몇 시간씩 보내다 가곤 했다. 팽나무 아래서 보낸 유년의 시간은 일부러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즐겁고 야끼고 싶은 곳이고, 절로 미소 짓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요즘 이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작은 도서관이 아닐까 싶다. 아기자기한 벽화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광령 1리 새마을 작은 도서관도 그럴 것이다.



쟁쟁 내리 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듯 '광령1리새마을도서관'을 찾았다. 광령이란 마을 이름은 옛날부터 뜻이 전해져 오고 있지 않으나 근처에 제주도에서 가장 큰 하천인 무수천이 있다. 그래서인지 도서관 입구 문에 근심 없이 맑은 천에 빛이 아름답게 비치는 광령1리 새마을 도서관이라는 문구가 윤슬처럼 밝히고 있다. 도서관 옆에 보건소, 농협, 마을 회관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광령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른이며 아이들까지 여러 세대들이 도서관을 두루두루 이용하고 있다. 인근 작은 도서관보다 넓고 지은 지 5년 정도 밖에 안 되어 깨끗하고 쾌적하다. 광령 1리 새마을 도서관은 사서 선생님과 지역 주민 봉사 회원들이 교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 금, 토 쉬는 날 제외하고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데 중고생 시험 시간에는 더 늦게까지 문을 열기도 한다. 도서관 내부 가운데 중문이 있어 한쪽에서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책 읽고, 공부하고 혹은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숙제를 하는 아이, 하교 후 혈레벌떡 뛰어와 시원한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아이, 부모님과 책을 함께 고르고 대출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광령1리 지역 쉼터이자 학습, 문화공간의 중심지역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서관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편하고 유익한 공간이 된 것은 사서 선생님들과 봉사 회원님들의 노력이 크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 및 도서 선정과 행사는 도서관 월례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신중하게

결정한다. 그래서인지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이 동아리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지속하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오카리나 동아리가 그러하다. 2018년 찾아가는 학습나눔터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는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오카리나 관심과 사랑으로 자원봉사자(오카리나 선생님)와 지역 아동과 주민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은 연습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이 동아리는 60대부터 초등생까지 함께하는 동아리로 어느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세대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가능한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고 연습을 쉬지 않고 계속한 덕분에 벚꽃축제 버스킹도 하고, 마을 행사에서 연주도 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도서관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동아리 외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해 글쓰기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변에 좋은 자연 환경이 있어서 과학적 사고 향상을 위해 과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 외에도 어른들을 위해 비누 만들기, 뜨개질 프로그램을 선택 진행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 받지 않고 도서관 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매해 방학 때 충효교실을 하는데 논어와 바른 글씨 쓰는 수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8월 말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이 와서 영어 봉사활동을 하는데 각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도서관에서 마을 청소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 도서관 개관 시부터 탄탄하게 힘을 뺏어 갔기 때문이다. 마치 나무뿌리가 잘 내리고 영야 많은 가지를 뺏어나가듯이 말이다,

이렇게 동아리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사서 선생님 및 봉사 회원님들과 정답고 친숙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 도서관이 유쾌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가득한 것 같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 성하다 했다. 나무의 성장은 뿌리부터 시작된다.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에서부터 나무가 자라고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단단히 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광령 1리 새마을 도서관은 광령 1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가지를 뺏어나가며 사계절 연연히 푸른 신록이 눈부시고 아름답게 비취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즐거로운 도서관생활

2023년 꿈바당 여름캠프 돌아온 '으스스도캉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으스스도캉스' 여름 일일캠프가
1차, 2차로 나누어 열렸습니다.

이번 도캉스는 '신화'를 주제로 하여 '신화속 괴물'로
만나는 책 속 괴물 이야기, 구연으로 듣는 '영등 할망 도깨비
이야기',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신화 괴물 등 무더운 여름을 으스스~
하게 만들어 버린 재미있는 이야기 프로그램과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과 맛있는 점심과, 간식도 먹었구요~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간지 집에 가기가
아쉬웠죠~
참여한 학생들, 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사랑과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에도 만나요~~~



국제관악제- 우리동네관악제 행사

8월의 푸른 하늘 아래 초록 빛깔이 반짝이던 날,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정원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국제관악제가 도서관 정원에서 열렸거든요!!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음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북카페 갤러리 '신화캐릭터 그리기' 전시

8월1일~11일까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북카페에는 '제주만화애니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제주도 신화를 주제로 초등학교생들이 그린 캐릭터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그림들이 북카페를 화사하고 예쁘게 장식해줬어요~

도서관 진입로 공사 및 도서관 주차장 이용안내

현재 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많은 양해바라며, 도서관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니, 천천히 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이 도서관 안에 신설 되었어요 :)
다만, 예전 주차장에 비해 자리가 많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과 다양한 전시 안내

8월에는 '신화와 전설속에 000이 산다'라는 주제로 북큐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림책 원화전시전에는 [해치와 괴물 사형제], [쇠를 먹는 불가사리] 도서가 전시 중입니다. <유럽그림책 작가를 만나다> 코너에는 '키티 크라우더'작가님의 그림책을 모았습니다.

그림도 감상하고 그림책도 읽어보는 1석2조의 여름을 함께 보내요~~



9월에는 <농경신, 자청비와 제주 우영발>을 주제로 북큐레이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